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정기회 속기록

일 시 장 소	2019년 09월 9일 (월) 14: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고홀
공개여부	공개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50명 중 31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원 : 김○○ 위원장, 강○○,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박○○, 박○○, 소○○, 유○○, 윤○○, 이○○, 이○○, 이○○, 이○○, 이○○, 이○○, 정○○, 조○○, 최○, 최○○, - 도의원 : 김○○, 김○○, 전○○, - 집행부 : 농정해양국장, 보건건강국장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 배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신성장농업팀장, 정○○ 사무관, 민○○, 박○○, 김○○, 정○○, 식품위생팀장 - 경기도교육청 : 학생건강과 학교급식지원사무관, 이○○ 장학사 - 시·군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양시 사회복지문화국장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황○○ 본부장, 송○○ 과장 - 농협경기지역본부 : 박○○ 부분부장

내 용

- *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 보고
- * 2019년 정책 시행사항 및 2020년 추진계획
- *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 * 먹거리위원회 발전방향 토론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정기회

속 기 록

.....

【 14:06 】

□ 사회자 (정○○, 경기도농업정책과 사무관)

- 지금부터 2019년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정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경기도먹거리 전략기획관 정○○ 사무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놓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의례 】

□ 사회자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소개 】

□ 사회자

- 다음은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목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 위원님
- 소○○ 위원님
- 윤○○ 위원님
- 정○○ 위원님
- 조○○ 위원님.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최○○ 위원님

< 일동 박수 >

□ 사 회 자

- 그 다음에 기관추천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같이 기관이름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 이○○ 역량강화실장님 오셨습니다.
- 경기광역자활센터 이○○ 센터장님.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 원장님

< 일동 박수 >

□ 사 회 자

- 이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에서 참석한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기도교육청 강○○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농정해양국 박○○ 국장님
- 경기도보건건강국 류○○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조○○ 국장님
- 경기도 축산산림국장님 대신해 오신 이○○ 축산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 시군대표위원회 위원이신 안양시장님을 대신해 정○○ 복지문화국장님 안양에서 오셨습니다.
- 김포시 정○○ 시장님을 대신해서 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 일동 박수 >

□ 사 회 자

- 다음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의원님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소개는 별도 인사말씀 시간을 갖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세 분 함께 일어서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

□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기존 민간위원님들의 소개도 생략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사 회 자

- 다음은 경기도먹거리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위촉장은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박○○ 농정해양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호명하는 위원님들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위원님. 『위촉장. 위원 김○○. 귀하를 경기도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19년 9월 9일부터 2021년 9월 8일. 2019년 9월 9일. 경기도지사 이○○ 대신 수여함』
- 다음은 소○○ 위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위원 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다음은 윤○○ 위원입니다. 위촉장, 위원 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다음은 정○○ 위원입니다. 위촉장, 위원 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다음은 최○○ 위원입니다. 위촉장, 위원 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새로 민간위원 위촉되신 분들 더욱 더 힘내시라고 함께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

□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신 김○○ 위원장님의 개회선포와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 개회선포 】

□ 위원장 (김○○ 위원)

- 2019년도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성원 50명 중 2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서 정기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인사말씀 】

□ 위 원 장

- 지난 주말 태풍으로 경기도 곳곳이 태풍의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기관을 대표하신 오신 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오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 오늘 저 민간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3명이 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출범이후에 첫 번째 정례회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오늘 경기도에 손님이 좀 다녀가시고 또 계속 이어지는 재해대책기관 회의 때문에 지사님,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참석 못하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주에 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우스도 날아가고 큰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피해당하신 모든 분들의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곧이어 추석명절이 닥치게 될 텐데 추석명절에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행복하고 넉넉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먹거리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더운 시기에 먹거리위원회가 전체위원들이 모인 워크숍을 가지면서 반년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워크숍도 진행 했었고요. 또 각 분과위원회들도 4개 분과위원회가 17차례 회의를 통해서 지난 6월 달에는 먹

거리 실행계획도 우리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간의 먹거리계획들을 143개라는 세부사업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1,350만 경기도민에게 어떻게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또 30만 경기도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한 것인지 다양한 노력들을 그동안 경주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 첫 번째 정례회의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어서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정○○ 위원님하고 소○○ 위원님께서는 오늘 지역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세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도의원님들 소개 한 분 한 분 드리면서 인사말씀 간단히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자리 김○○ 위원님부터 인사주시고 간단한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 도의원 인사말 】

□ 김○○ 위원 (먹거리보장분과 도의원)

- 감사합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입니다.
- 어제 피해 입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까지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또 마침 오늘 먹거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저는 처음에 이 방대한 먹거리위원회가 여러 과와 부서를 다 통합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차츰차츰 계획대로 실현화되고 구체화된 것을 보면서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 함께 참여해주시고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매번 올 때마다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전○○ 위원 (시민협력분과 도의원)

- 반갑습니다. 양평출신 전○○입니다.

- 태풍피해는 많이 없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지역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농민여러분들께서 링링 태풍 때문에 여러 모로 걱정과 심려가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먹거리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먹고 난 후에 뒤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는 지역이 또 양평이다 보니까 양평은 경기도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경기도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정책, 그리고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 다음 이어서 김○○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김○○ 위원 (식생활문화분과 도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포출신 김○○입니다.
- 박○○ 분과위원장님 오셨지요? 우선 가장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식생활문화분과위원회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옆에서 보면서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통 회의를 하면 30분 정도면 거의 끝나는데 이 먹거리위원회만 오면 3시간입니다, 회의가. 그만큼 막중한 어떤 일을 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우리 도민들이 아실까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식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힘쓰시는 것 아마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 돼서 각각 지역에서 뿌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교육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겠고요. 저희는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서, 저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도 주민들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학생들 식생활교육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많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서 건강해야지 행복하리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지 공부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도 있고 그 러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참석하신 위원 세 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 과 보 고

□ 위 원 장

- 그러면 회의 일정에 따라서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 받겠 습니다. 경과보고는 경기도농업정책과장이신 김○○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 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김○○ 위원 (경기도농업정책과장)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먹거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입 니다.
- 먹거리위원회 운영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 위원

- 지난 1월 7일 경기도먹거리보장 기본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경기 도교육청, 시군과 민간이 참여하는 경기도먹거리위원회를 1월 30일 출범하였 습니다.

- 출범식 날 의결한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운영세칙에는 매분기 분과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분과별 회의를 각 한차례 개최하였고, 식생활문화분과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먹거리 전략을 준비하면서 202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시민단체주관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공모를 3월 8일 실시하여 21개 시민단체에 예산 2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도먹거리보장 기본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5년마다 먹거리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지난 4월 9일 수립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해 10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경기도먹거리전략에 대해 토론해주신 먹거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먹거리전략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전략, 12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라 먹거리 위원회분과도 4개의 분과위원회와 기획조정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사업들을 논의·제안해주셨습니다.
- 경기도차원에서 수립한 먹거리전략을 시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5월 14일부터 30일까지는 5차례에 걸쳐서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푸드플랜을 수립한 화성시를 비롯해서 수원, 평택, 이천, 광주, 시흥 등 5개 시군에서는 현재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파주, 부천, 안산, 용인, 안양 등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6월 21일 먹거리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찬회 일정 등을 논의하였고, 1박 2일의 위원회 연찬회를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7월 18일부터 양일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찬회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김○○ 위원님, 전○○ 위원님, 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3분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별 논의결과는 잠시 후 별도 발표 시간이 있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33쪽부터는 출범식 할 당시에 창립을 위한 1차 회의록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농정해양국장님께서 4시에 전국 재해대책 영상회의가 잡혀있다고 그러셔서 저도 보내드리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 (농정해양국장)

- 벼 11,400ha가 쓰러졌고요. 그 다음에 과수도 많이 떨어졌는데 경기도는 과수 피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오전에 안성에 오셔서 과수 농가 다 보고 가셨고, 지금 보험가입 농가의 경우에는 내일까지는 다 신고를 해서 내일 모레까지 조사를 하고 또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것은 추석 전에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당겨서 좀 일을 시군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안양시도 갔지만 김포시도 안양시도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군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지원 복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 14:25 농정해양국장 퇴실 】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위 원 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도와 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위명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조직명을 좀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 그래서 운영세칙 5조와 6조, 7조, 8조에서 제안드렸던 것처럼 2개의 위원회로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참여하셨던 거를 아까 신규위원님들 위촉하면서 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한 개의 분과로 활동을 하시는 내용에 대한 운영세칙 개정(안)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6조에서는 복지국장, 7조에서는 농정해양국장, 축산산림국장님과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8조에서는 농정해양국장과 보건, 건강국장 이렇게 직위명이 바뀐 것에 대한 운영세칙 개정(안)입니다.
- 혹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위 원 장

- 그러면 김찬수 위원장님이 동의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으셔서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요.

□ 김○○ 위원 (시민협력분과 부위원장)

- 위원장님! 분과위원회가 기획조정분과위원회도 위원회로 보면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요?

□ 위 원 장

- 혹시 그것 관련해서 팀장님,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지금 각 분과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해서 기획조정분과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 사 회 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단 조문에 기획조정분과위원회를 예외로 둔다는 조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 위 원 장

- 그러면 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운영세칙 원안대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보고

□ 위 원 장

- 다음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보고와 2020년도 정책시행상황 및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 보고는 한○○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한○○ 팀장 (경기도먹거리전략기획단)

- 경기도먹거리전략기획단 한○○ 팀장입니다. 경기도먹거리전략 수립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 경기도먹거리전략은 경기도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5년 중기전략계획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먹거리위원회 예비위원 중심으로 11차례의 토론과 지난 1월 30일 위원회 공식출범 후 2월에서 3월까지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4월 9일 도지사 결재를 거쳐 확정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기’ 라는 비전 아래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농업과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누구나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보장 등 4개 전략에 12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전략 1, 2, 3, 4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정책 시행사항 및 2020년 추진계획

□ 한○○ 팀장 (경기도먹거리전략기획단)

- 이어서 금년도 주요 실적 및 2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 먼저 지난 1월 경기도먹거리보장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경기도먹거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 둘째, 정부와 시군이 임산부, 영유아 등에게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도비를 신규 지원하여 1,300명의 대기자를 없앴습니다.
 - 셋째,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제공시 지역농업과 연계강화를 위해서 시민단체 먹거리보장사업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넷째, 금년 2학기부터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미래 세대의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증진 아울러 지역농업의 연계발전을 위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작년 지역아동센터 3만 9,000명에서 금년에는 모든 어린이집 약 4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시군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도의 모든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다음으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20년 추진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 먹거리보장관련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신규로 도입한 먹거리보장 시민단체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조례 제7조에 따라 먹거리정책평가, 도민의 보장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도와 시·군의 먹거

리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이 함께 경기도먹거리정책 포럼을 금년에 구성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 먹거리 혁신주간, 온 가족 식사의 날 등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캠페인, 홍보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의 유휴공간에 공유부역을 설치하여 먹거리 나눔, 식생활교육, 관계회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마을공동체 공유부역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침결식 대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고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도시와 농촌이 먹거리를 주제로 교류할 수 있는 종합거점 먹거리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경기상상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경기도먹거리문화 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년 내에 평택에 토종종자은행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토종종자의 수집, 증식, 보존, 보급, 홍보, 교육 등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직매장 중심의 로컬푸드 사업장을 교육, 만남, 나눔 등의 커뮤니티 활동과 로컬푸드의 분산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합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먹거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먹거리 정책 개선사항과 제안되는 신규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 한○○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올해 사업 추진내용, 그 다음에 2020년도 사업계획 내용들은 각 분과에서 분과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 그리고 좀 있다가 김○○ 위원장님이 간단한 한 5분 정도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기조발제를 해주실 텐데 그 내용 포함해서 이 3개를 다 포함을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종합토론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따가 질문하실 내용 또는 의견 있으신 내용들은 이따가 함께 나눠 주시면 고맙습니다.

- 그러면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경기도먹거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분과위원회가 토론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이 내용에 관련해서 각 분과위원장님들께서 3분기 관련된 논의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보장분과 김○○ 위원장님부터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 김○○ 위원장 (먹거리보장분과)

- 먹거리보장분과 김○○라고 합니다. 제가 보고할 내용은 20페이지입니다. 먹거리보장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된 5가지 정도의 내용인데요.
 - 첫 번째가 어린이와 관련된 어린이건강과일 공급사업 확대 같은 것이라든지 어린이집 아동급식비 동일지원 같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 또 하나는 대학생 급식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를 도민 학생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학생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근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 세 번째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언론보도, 보건건강국에서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가공업체라고 할 수 있는 김치가공업체에 대한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 그 다음에 NON GMO 또는 무방사능 학교급식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공동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로 경기도 토종종자정책추진 시 민간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우바이오등과 같은 기업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추진계획 말씀하시면서 토종종자은행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우리씨앗네트워크하고 관련된 민간협력에 대한 운영방안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된 것 중에서 저희가 위원장이어서 보고를 하긴 하는데, 여기 논의된 것 중에서 많은 얘기들을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대학생 급식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계신데 김○○ 교수님,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한 1분 정도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1분 정도.

□ 김○○ 위원 (신한대 교수)

- 존경하는 류○○ 국장님이 지금 보니까 오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지하수가 50%이상 이렇게 오염됐다라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서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특히 물을 많이 쓰는 김치가공업체를 특별히 먹거리 위원회에서 식품안전차원에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11월에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대학생들 먹거리 급식비 지원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그런대로 아침에 식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소득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큰 걱정을 하는 건 없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 학생들이 아침식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매일 같이 컵라면 외에는 먹을 게 없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학생들 특히 1,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김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법적인 거를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한 번 저희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위원

-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먹거리보장분과 논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먹거리보장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지역먹거리분과위원회에 김○○ 위원장님께서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 김○○ 위원장 (지역먹거리분과)

- 반갑습니다.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지역먹거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입니다.
- 먹거리분과가 수차례 논의됐는데요. 중요한 것 4가지만 간단하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2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첫 번째 학교급식 수발주 관련 e-aT 프로그램 통합 관련 협의의 필요입니다. 경기도 일대 시군납 지역이 있는데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포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수발주를 경기도 연합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수발주와 정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경기도 군납에 대한 군납쌀을 경기도 G마크로 확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자독립을 위한 벼 품종에 변경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위원회가 시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위원회에 대한 도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역먹거리분과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이어서 식생활문화분과 박○○ 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박○○ 위원장 (식생활문화분과위원회)

- 반갑습니다. 식생활문화분과 박○○입니다. 계속 보고만 듣고 있으니까 힘드시지요? 특히 당연직 위원님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 졌구나, 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생활문화 분과는 핵심과제가 크게 3가지입니다.

- 일단 여기 교육청 관계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교육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을 어떻게 내실화 시킬 거냐가 첫 번째 과제고요.
- 두 번째가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지막에 식생활과 관련된 행복한 식문화를 조성하는 게 저희 분과의 핵심과제라서 저희가 내년사업을 논의하면서 제기됐던 몇 가지 문제를 여기 있는 21쪽 자료를 참조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세부사업계획 중에 원래 쿠킹버스 운영을 통해서 열악한 지역에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을 검토를 쪽 하고 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미 쿠킹버스를 운영했던 서울시 사례를 봤을 때는 버스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너무 과다해서 서울시가 올해부터는 쿠킹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당초계획에 먹거리 전략의 세부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를 감안했을 때는 쿠킹버스 운영사업은 일단 제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논의가 먼저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두 번째는 식생활 관련해서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식생활 교육을 열심히 하더라도 가정과 연계 우리 도민들이 식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을 아이들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부모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세부사업 중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사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식용곤충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에 좀 집중이 돼있는 경향이 있어서 식용곤충 말고도 한국형 전통식생활을 유지·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의제를 새로이 발굴하고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 그 다음 식생활 관련된 각종 교보재를 개발할 때는 경기도 제철농산물을 이용한 가정식 레시피 등 한국식 전통식문화를 계승할 수 있고, 또 경기도만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의견과 인프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학교 내 식생활교육관을 설치·운영하고, 학교 밖에서는 공우부엌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었는데,

문제는 설치 운영한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안 된다 운영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설치비 말고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 운영비 확보를 통해서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정상적으로 인프라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 그리고 친환경학교농장사업은 지금 경기도 현재 추진 중인데요. 이 학교농장 조성사업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을 토종종자를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설계하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공유를 제안을 했고, 특히 저희 마지막 식생활문화분과는 특성상 학교 내에 있는 교육청과 학교밖에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 교육운영팀이 굉장히 긴밀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급식지원센터 위원회 간에 공동회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교육운영팀은 교육청 과전 공무원 두 사람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 학교교육과 연계성 말고도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식생활교육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청의 일반 공무원이 결합해서 업무의 지속성도 확보하고, 학교 밖 식생활교육을 좀 더 업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직에 대한 제안을 저희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시민협력분과에 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 부위원장

-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큰 틀에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과제를 좀 정하고 세부적인 과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인데 위원회에서 먼저 경기도만의,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먹거리 철학을 정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와 철학에 관련 하면서 다소 위원회 내에서 좀 논란이 있거나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치와 철학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좀 제기됐고요. 그리고 지역거버넌스 구축할 때 지금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 푸드플랜 작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고,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할 때에 시군에 있는 인프라적인 대표적인 것이 지속협이 있는데 지속협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하고,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에 로컬푸드 공급을 연계해서 먹거리정책의 모범사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었어요.

- 그 다음에 사업할 때 이슈사업과 관련해서는 1년 이내 이렇게 정하지 말고 좀 중장기지만 한 3년 정도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이슈화해서 사업이 진행돼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경기도가 워낙 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또 친환경급식으로 물량도 확대될 것이고, 또 공급식분야에서 군이나 이런 데에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물량과 관련해서 많이 늘어나는 중인데,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넓고 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다해서 물류를 고민하는 게 어떨까 이런 그 관계. 전략적 품목에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되겠지만, 전략적 먹거리 품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생산, 소비 이런 좀 지도를 그려서 경기도 전체에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게 해서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 그 다음에 먹거리정책에 관심 있는 기초단체위원들,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잘 발굴하고 조례 제정 등 지역제도화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분과위원회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과일간식사업의 추진경과와 또 일부 컵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초등학교1, 2학년 같은 경우 이런 것 관련해서 일부 환경 쪽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하니 이런 문제점과 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위원회 차원에서 과일간식 관련된 토론회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게 어떨겠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 1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농정해양국 내에 먹거리정책 관련된 전담부서가 아직 없는 상태로 활동이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래서 먹거리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들이 지금 제기가 됐었어요.

- 세 번째로는 도 및 시군에 먹거리 행사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먹거리정책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세워서 집행부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내용을 뭐 할 건지의 내용보다는 정책토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먹거리위원회 각분과위원회라든지 전체위원회에 논의의 질을 좀 높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먹거리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농정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게 작년 예산인 것 같은데요. 농정예산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2.8%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들도 필요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더불어서 10월 중에는 의회와 함께 먹거리토론회를 개최할 것에 대한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먹거리 폐기 관련해서 자원화 시설 현장방문에 대한 것도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사업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서울대 농대부지를 활용한 먹거리 관련된 광장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먹거리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 공문을 다 시행을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지금 얘기로다가는 12개 지역정도가 먹거리포럼의 위원으로 다 요청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19개 시군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가 없으셔서 이런 먹거리포럼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이상으로 4개 분과와 기획조정분과까지 지난 3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왔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기초발제 내용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별첨자료로 드린 내용인데 내용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김○○ 분과위원장님께서 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5분의 시간을 통해서 기초발제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김○○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김○○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분과위원장 보고도 있었는데 다

시 한 번 하게 돼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먹거리위원회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게 나오게 된 게 제가 발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기획분과하면서 저한테 먹거리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 걸쳐서 보고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먹거리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제 의견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역할 그 다음에 아까 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 가치 이런 얘기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해보자하는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여기 계획표에 보신 것처럼 3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분 정도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시면 별첨인데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첫 번째가 경기도농업과 관련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농업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농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크게 큰 틀에서 보면 2017년도 경기도 농가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농가가 차지하는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농가수나 농가인구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다 10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은 한 35.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입니다.
-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으로서의 경기도의 농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경기도 농정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GR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1%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8%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GRDP하고는 함수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또 한편으로는 산업주체로서의 경기도 농업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농업경영체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농업경영체가 이렇게 되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0.5ha미만 농가비율이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 여건의 변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 농업정책의 방향’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선7기 이제는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정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 그 밑에 핵심 가치들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건데 농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어디서 “농업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농업은 먹고 살기 힘들다. 사양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 쇠퇴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일들, 살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이 돼야겠다는 그런 가치를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경기도먹거리 전략비전인데 이걸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도록 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추진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분야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침결식률을 줄여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나가겠다는 게 경기

도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경기? 보장받는 새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경기도먹거리위원회의 모델이라고 크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먹거리위원회 본연의 가치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거리위원회 기본원리를 공정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자. 지속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자. 그 다음에 건강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자. 연결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운영해 나간다면 앞에서 말한 비전을 실현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운영모델을 보시면 먹거리위원회의 기본원리를 이렇게 4가지 공정, 지속, 건강, 연결 의식 속에서 운영원리를 아까는 SMMC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지원을 잘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활동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나와 계시지만 여기 위원분들이 지자체별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군협의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이나 군수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기관과 연결을 어떻게 잘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끝으로 운영철학은 민관 협치를 주관으로 한 보편적인 시민주의 지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먹거리운영위원회 운영세칙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하 생략하고요.
-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8페이지 두 번째 먹거리위원회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먹거리 일반적인 문제들은 아까 기획분과위원장님이신 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분과위원님들도 발표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여기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가 먹거리의 역할 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무지원기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 두 번째는 먹거리 전략을 통합적 실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담부서의 역할이라는 게 끝에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인 사업 집행기구인 중간지원조직으로 경기도먹거리종합지원센터 본부를 만들어서 먹거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민과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땡겼느냐.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 끝으로 아까 예산문제 얘기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예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우리가 농업, 농수산, 농민하고 관련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민예산이 농업예산이 2.8%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먹거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확대해서 잘해나간다면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밖의 부분들은 참고할 자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김○○ 교수님 급하게 얘기하고 강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까 19년도 추진과제, 그 다음에 2020년 중요사업계획 그리고 각 분과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들과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해주셨던 몇 가지 중요한 먹거리위원회 운영과 또는 지원 기구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질문사항이든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이든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오늘 정례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쯤 정례회의가 있게 될 텐데 그 이전까지 내년

사업이라든지 계획 관련돼서도 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어떤 얘기든 여러분들 의견을 통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거수하고 표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토론 】

□ 김○○ 위원

- 아까 말씀 중에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포럼이 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데요. 그 12개만이라도 우선 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각 지역에 어떤 지역이 포럼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보고, 또 해당지역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가서 기초에다가 얘기해서 좀 잘되도록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응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혹시 그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 한○○ 팀장

- 한○○ 팀장입니다. 12개 지역에 포럼이 구성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통합적으로 포럼을 구성하는데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시군에 포럼에 참여할 사람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행정기관으로만 요청을 하니까 아직 행정기관에서 먹거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시군에서는 추천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시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활동하고 계신 단체에 저희가 별도로 또 다시 요청을 드릴 계획이니까 그때 각 시군에서 먹거리 포럼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이 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자

- 참고로 위원님들이 현재 아까 말한 12개 시군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위원님들과 그 자료 현황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그래서 내년 준비될 그 포럼이 31개 시군 한 군데 빠짐없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또 행정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위원 여러분들과 또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이○○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이○○ 위원 (시민협력분과)

-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면 먹거리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게 농산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먹는 축산물, 수산물이 안전한 건지 어떤 이력을 거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안내 같은 게 그동안 계속 없는 게 오늘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도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줄 수 있는지 좀 질문 드립니다.

□ 사 회 자

- 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현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혹시 축산정책과장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 과장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장 이○○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먹거리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요. 그 중에 주식이 물론 농산물 쌀도 중요하지만 축산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부터 우선적으로 G마크인증 제도에 농정국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걸 지정된 곳을 우리 소시모라든지 사회단체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요. 그게 한 번 받으면 계속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갱신입니다, 재조사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ACCP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향생제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내에 물이 한 50% 정도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이러는데 저희 축산분과 지방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먹는 물 기준에 의해가지고 다 식수, 그러니까 가

축이 먹는 물도 검사를 다 받아야지만 받고, 그 물을 갖고 사육한 농가에 대해서만 G마크 인증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계통을 통해가지고 축산물을 계속 관리해오고 있고요. 물론 먹는 사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에 4번 사료 검사를 해서 아플라톡신이나 기타 유해물질 등이 함유돼 있나 해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물이 오면 도축장하고 또 가공장을 거치는데 도축장하고 가공장은 정부에서 HACCP 인증기준에 의해가지고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돼 있는 그것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부분육이나 아니면 생육을 해가지고 인근 정육점이라든지 마트에 공급되고요. 학교에 가는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에도 거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적절한 온도로 관리된 것을 그대로 납품을 해가지고 그날 점심에 가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먹게 그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기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는 지금 완벽하다고 완벽한 게 아니고요. 계속 더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하는 걸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미흡한 업체가 있으면 지도단속이나 아니면 정 못갈 데 같으면 얼른 그냥 제외시키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 원 장

- 이○○ 위원님 되셨지요? 그리고 향후 먹거리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축수산물 관련해서,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축산물에 대한 중요성들 얘기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들, 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김○○ 위원

- 먹거리보장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생활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무상과일 지원하는 사업을 경기도에 있는 모든 센터장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저 또한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번에 와서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한 번 구체적으로 한○○ 팀장님 저거 한번 여쭙보니까 시군형편에 따라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정이 됐나요, 지금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비?

□ 한○○ 팀장

- 결정된 겁니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김○○ 위원

- 결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한 번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어린이집 경기도에 있는 센터장들한테 한 번 이것 공문으로 보내주면 굉장히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 원 장

-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한○○ 팀장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복지국, 보건건강국 같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홍보문안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네, 알겠습니다. 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소○○ 위원

-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언론보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경기도에서 공표를 했지만, 교육청이나 관련지자체와 예산분배 문제가 원활치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이 잘 안돼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나온 기사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경기도내에서 어떻게 조율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조○○ 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 처음 회의에 참여해서 우선 이런 뜻깊은 일에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내용이 경기도교육청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김○○ 도의원님도 교육위원 모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이 좀

빨리 잘 해결이 돼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고교무상급식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면 금년 1월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지자체협의회 3개 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을 경기도 50%, 경기도교육청 50%, 이렇게 큰 틀로 합의를 했고, 경기도 50%에 해당하는 내용을 경기도에서 15%, 지자체에서 35%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경기도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모두 그것에 해당하는 비율을 추경 예산에 다 담았는데, 다만 경기도와 지자체하고 15대 35에 대한 비율부분에서 아직 정확한 100%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지자체 협의회에 그 단체회의에 가서도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그런 설명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해가는 과정으로 해서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좀 그런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아울러 드립니다.

- 이상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 원 장

- 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윤○○ 위원

- 윤○○입니다. 고교무상급식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15대 35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에 단가 처음 책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의 문제가 더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적으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고교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가가 낮아지는 기존에 단가보다 단가가 낮아져서 급식의 질이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혼란 없이 그리고 기존에 급식의 질을 담보하는 저희가 지금 이 먹거리의 질에 대해서 친환경을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오히려 고등학생들의 그 먹거리 질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정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 김○○ 사무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지원담당)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지원담당 사무관 김○○입니다.
- 실무담당 사무관이어서 제가 답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속이 어디신가요?

□ 윤유진 위원

- 안양입니다.

□ 김경수 사무관

- 안양이요? 처음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들이 저는 가격대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양이 여주보다 1,000원 이상 더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높다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단가가 낮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이쪽으로 접근하면 그동안 낮은 단가에서도 열심히 일해 왔던 학교장, 그리고 학교급식 관계자들, 학생들 모두의 노력들이 폄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지역상황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존중이라는 것들은 급식단가가 높다고 접근하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공청회, 용역의뢰를 통해서 약 세 차례 의견들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가예산 61억을 추가 편성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4,000원대부터 그러니까 여주 모학교는 4,000원이고요. 의왕에 있는 모학교는 5,500원 정도 됩니다. 약 1,500원의 차이 이 가격들을 어떻게 줄일 건지 이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편성을 했었고, 용역에서 평균 상향되는 학교가 대략 저희들이 한 60% 정도가 상향되고, 40%가 하향이 되는데 하향되는 학교가 상향되는 학교에 비해서는 일종의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을 해소하고 2학기 실시 때 따른 이 혼란스러움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학교 현장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준으로 최소 평균 하향되는 금액이 197원 정도 됐었는데 2학기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하향되는 금액 50%를 지원한 결과, 대략 한 97원 정도 하향이 됩니다. 97원이면 학교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고요. 또 안양학교들이나 모든 학교들이 급식일수가 같지 않습니다. 급식일수에 따른 단가 차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160일에서 190일까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특정일과 특정

단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급식질이 낮아진다고 평가해버린다고 하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안양, 과천, 의왕, 군포들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님들과 면담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님도 가셨고 또 지역 권역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좀 일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학교 구체적인 명칭까지 대면 과천중앙교회 운영위원장님이 저희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을 하셨었는데, 마지막 권역설명회를 거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 협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학교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물론 그 의견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4,000원 대와 5,500원 대의 간격을 줄이는 게 무상 급식이 갖고 있는 보편성들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과의 차별을 없애고 또 같은 시군 내에서도 또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 차별들을 없애는 원칙과 균형을 이야기해서 잡고 2020년도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론 10원이 떨어지든 20원이 떨어지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편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향후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리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원 장

- 위원님, 이 고등학교 무상급식문제는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후에 좀 더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윤유진 위원

- 이렇게 길게 답을 들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 위 원 장

- 또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김○○ 위원 (시민협력분과)

- 김○○입니다. 시민협력분과인데요. 제가 계속 가치문제를 많이 주장하는데 사실 먹는 것의 관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먹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얼마나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느냐가 먹거리위원회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

고 한다면, 또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민 모두 누구나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먹거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 층위가 굉장히 높게 있는데 이 높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모든 가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으니까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민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단계별 추진에서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그 목표에서 가치를 경기도민이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든지 또는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교의 어린이들이 단체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식판에 밥 받아먹는 형태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한 어린이 한 어린이가 먹는 걸 앞에 놓고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경기도의 농민들이 무엇을 생산할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민이 지금 현재 무엇을 소비하는지, 그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도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도는 총괄하시고 각 시군구가 구체적으로 지금 먹거리위원회에서 하니까 시군구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학교교실에서 보셨으니까 각 학교단위에서 그 학교의 어린이들,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학교 말고 집에서나 다른 데서 뭘 먹는지 이런 조사도 한 번 해보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 이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해야 될 가치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 원 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정○○ 위원(시민협력분과)

- 임산부를 지원하는 영양플러스가 친환경물품이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후에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페이로 지급을 하고 친환경물품을 사먹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프레임을 기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농협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로컬푸드도 화성이나 안산같이 큰 데는 꿈도 못 꾸고 생협도 안되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양플러스나 그렇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지는 먹

거리보장과 관련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곳들을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고, 오늘 태풍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답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 원 장

- 보건건강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류○○ 국장 (경기도보건복지국)

-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국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 아닌데 도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그 수탁업체의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과제로 친환경급식물로 들어가게끔 해서 그건 다 지금 가정에 배달로 돼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씩 농산물이든가 필요한 우유 등이 배달되는 걸로 아마 주1회일 겁니다. 주1회 배달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화폐하고는 좀 무관한 정책인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잡은 김에 저도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셔서 그 김치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점검을 다 했고, 또 이번에 11월에 김장 전에 다 한 번 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그만큼 저희 먹거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양한 음식중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되고, 또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되고, 취약계층에 적정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되고,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같이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같이 좀 논의의 장에 올려놔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GMO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맨 처음에 이 전략에 들어갔다 지금은 빠져있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 부서가 식품위생법을 관장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Non GMO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지금 Non GMO 제도를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 식품안전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해서 그 부분의 인증제도를 저희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급식, 학교급식에 어떻게 활용될 건지 그런 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여기 먹거리위원회에서 많은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주시면 저희

가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고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이○○ 위원 (떡거리보장분과)

- 조금 아까 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 제가 그동안 한두 번 얘기하다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축산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건의 드리는 건데요. 여기 떡거리위원회에 보면 주로 농산물 생산유통 이런 분야, 또 학교 급식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까 축산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축산물 위생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 축산식품이 지금 우리 국내 소비 식품에 35%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축산에도 생산 유통 하여간 이 농산물보다는 더 세밀하게 위생도 따지고 여러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저도 솔직히 축산의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생 쪽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축산 쪽의 위원들 이번에 새로 또 그런 분이 안 오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축산분야에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3만 불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학교급식, 생산 공급, 안전대책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상류층을 위한, 상류층 내지는 소비자를 위한 안심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심대책,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석회질 물이 나왔는데도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면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비자하고 안심대책을 좀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분과회의를 통해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것도 강조하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신 걸로 보고요. 위원님들 중에 한 2, 3분 정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계셔서 그분들 먼저 말씀을 듣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있다가 한 말씀 주시고요.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강○○ 위원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 오늘 처음 참여해서 지금 저희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제가 학교급식 담당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간 여러 논란도 있었고 곡질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잘 참여해서 듣고 올 하반기까지 안정화를 이루어서 2020년도부터는 위원회는 물론이고 도민전체가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 원 장

- 그리고 우리가 기관대표로 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도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역량강화실장이신 이○○ 실장님 계시는데요. 복지영역에서 먹거리 위원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지요.

□ 이○○ 위원 (경기복지재단)

- 경기복지재단에서 온 이○○입니다. 기관에서 추천해서 자의적인 의사표현을 할 기회는 없었고요. 이제 위원이 됐으니까 오늘 주신 자료 많이 공부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회가 목표하는 성과를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먹거리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희가 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침 또 저소득층 먹거리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서 내에서 좀 알아보니깐.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는 할 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 원 장

- 위원님들 3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회의라든지 워크숍을 하면서 도의회에서는 매년 정책토론주간 이런 것도 잡고 해서 먹거리 관련된 내용 중에 중요한 의제들을 선정해서라도 그렇게 토론할 요지들도 갖고 계시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정활동하시면서 먹거리위원회 관련된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라든지 관련해서 말씀 한 분 한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 김○○ 위원

- 반갑습니다. 제가 먹거리보장분과인데요. 회의는 참석을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요. 먹거리보장분과로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

리긴 했는데 잘 정리해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식재료 현물 지급하고 무료급식소에 현물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는 모르겠는데 진짜 취약계층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받더라도 그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그것을 요리해서 잘 섭취하실 수 있을까가 항상 걱정이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에 방치돼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먹거리의 현물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도 일부분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완성된 건강하게 요리된 완성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식생활문화분과에 공유식탁도 있고, 공유부엌도 설치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저소득아이,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먹을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이나 문화적인 체험, 다양한 재미있는 즐거운 프로그램이 식재료 제공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먹거리 보장분과 때 말씀 못 드려서 여기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원하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담 인력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전담조직이 생겨서 이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 위 원 장

- 이어서 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전○○ 위원

- 아까 경기도먹거리위원회 논의결과 보고를 듣다 보니까 먹거리보장분과위원회에서 여기 지하수 50%가 오염이 돼서 그래서 여기 김치가공업체 점검을 했고, 지금 그것 했나요? 아니면 지시가 된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 류○○ 국장

- 점검 4월에 했고 거기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1월에는 김장을 하니까 그 전에 점검할 계획이고, 그 50%라는 건 조금 과장된 수치이고 민원성이 있는 것을 들고 갔을 때 10에 4개가 부적합이 난 거고, 전체적인 제안수를 조사한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 전○○ 위원

-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어린이집에 무료로 과일급식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과일급식도 지하수로 씻거나 또는 수도물로 씻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류○○ 국장

-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과일이든 채소든 노로바이러스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집에서 먹을 때 수시로 씻어서 세척해서 먹어야지 그걸 아무리 깨끗하다고 세척을 안 하고 드시면 노로바이러스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하수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에서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교육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 위원

-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식생활분과위원회에서 아까 제시하셨던 것 중에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각 지역마다 특이한 음식이라든지 음식문화, 그리고 조리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내서 체계화해서 이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보급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라는 것은 생산과 그리고 유통과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음식 찌꺼기, 또는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생산하는 분야는 크게 경기도를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예를 들자면 도농복합도시 있잖아요. 양평이나 여주나 가평이나 포천, 연천, 김포 이런 도시를 친환경 먹거리 생산단지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권역별 물류단지를 크게 조성하고, 이것을 시스템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트워킹해서. 그러면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들쭉날쭉 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같은 분야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형 친환경 매장을 보급하는 건 어떨까? 로컬푸드매장. 푸드마인즈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매장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이 친환경매장이 도시형과 시골형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보급을 하는데 도시형하고 시골형하고는 이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은 약간 성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는 양평에 살고 있는데 양평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들 텃밭이 좀 있어요, 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나들 집에서 상추는 키우는데 당근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매장에 가서 이것을 약간 물물교환 식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시골형 로컬푸드 매장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요새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형 매장이 워낙 시장이 커지고 있고, 대부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매장 식으로 지금 소비자가 옮겨가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형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온라인에 치중해서 특히 요새 새벽배송, 이 새벽배송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새벽배송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온라인형 매장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많은 경기도민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남은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경기도형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푸드뱅크를 같이 운영해서 거기에서 남은 그런 푸드를 지역에 있는 저소득계층이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나눔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되어있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먹거리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에게 모든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되어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한 번 좀 크게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주십시오.

□ 김○○ 위원

- 사실 지금 세척이 변경이 됐잖아요. 교육청 집행부가 부서 등등이 많이 바뀌면서 세척이 변경돼서 여기 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 원래 오셨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오셨습니다. 똑같이 저는 지금 소속은 제2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급식업무가 제2교육에서 제1교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는 경기도의회 의원이라고 아마 그냥 소속이 되어있을 텐데 아까 전○○ 위원님께서 음식 먹다가 남은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좀 변경한 일이 있어서 푸드뱅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인식이 안돼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서간의 소통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하는 집행부와의 소통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말씀을 잘해주셨거든요. 저도 교육위원회의 한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5분 발언에서 고교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발언을 처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교육감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제1교육위원회로 이것 업무분담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뿐만이 아니고 지원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 뭐하고 있냐고 그러기도 하고, 돈 떼어먹는 거 아니냐, 나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가끔씩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청에서 그런 급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좋은 의견주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이러 이러한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스러워 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 또는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거고요.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다가 조금 홍보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 원 장

- 고맙습니다.

□ 김○○ 위원

-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도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토론의 성격이 얘기하면 그것이 그냥 반론이 없으면 그걸로 정해질 우려가 있어서 조금 전에 도의원님 말씀 중에 새벽배송에 대한 것은 저희는 철학적으로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새벽배송에 대한 것은 이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아마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먹거리조례에 있는 통합지원센

터를 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로 다 채웠는데요. 이것도 그냥 공무원들의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지금 이게 마땅히 필요하다, 조례에서 근거가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쉽게 그냥 탁탁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진행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례에는 대행하게 한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언제 이것을 대행해서 따로 만들 것인지 어떤 과정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주 전략으로 민·관 협치라는 것을 두셨으니 거기에 걸맞게 이런 것도 좀 풍부하게 토의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 원 장

-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서 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사 회 자

- 위원장님,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저번에 워크숍 할 때 2학기, 2학기란 표현은 그렇습니다. 가을에 의회주관으로 토론회를 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오시기로 했는데 소○○ 위원님한테 전달을 했고요. 소○○ 위원님이 의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위원회 소속 5분의 위원님들이 조만간에 회동하는 자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마무리 말씀 】

□ 위 원 장

- 소○○ 위원님이 농정해양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농정해양위가 주축이 돼서 5분의 위원님과 함께 우리가 하반기 10월 중에 이런 먹거리 관련된 토론회가 있을 거다 생각하시고 우리 먹거리 위원님들은 반드시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런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먹거리 위원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기 위원들이거든요. 1기 위원들의 역할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나왔던 많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또 다시 제기하기보다는 이

먹거리위원회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지금 제기되었던 몇 가지 전담부서의 문제라든지 또는 실무지원기구의 문제라든지 또는 중간지원들 중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내년 1년 동안 고민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2기 위원회가 꾸려졌을 때에는 좀 더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준비된 위원회로서의 역량이 충실히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1년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위원회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 마무리 말씀으로 좀 수정이 있어서 성원보고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50명 성원 중에 29분을 얘기 드렸는데 늦게 오신분도 있고 해서 대리참석하신 분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참석하신 분들 제외하고 50분의 성원 중에 31분이 참석을 하셨다는 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폐회선포 】

□ 위 원 장

-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5:45 】

===== 끝 =====